

# 과학기술성과확산, 지금이 적기다

여가 혹은 여가활동은 19세기 산업혁명의 결과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터와 집이 분리되었으며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휴식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 여기에 사람들의 일상적인 체험공간을 크게 변화시키는 철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출현하면서 이른바 여가 산업이 출현하였다.

세계적 여행사 '토마스 쿡'의 등장으로 가족단위의 여행객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을 만나고, 자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지질학과 생물학 분야에 관한 생생하고 폭넓은 지식을 향유하게 되었다.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을 내놓았던 찰스 다윈이 어린 시절부터 심취했던 조개 모으기, 화석 모으기는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여가 문화를 추구하던 시대의 의도적인 결과이자 자연스런 표현이었으며, 당시 과학은 합리적인 여가문화의 핵심 자원이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다. 지난 3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가 공식적인 재량수업에 들어갔다. 토요일 자율수업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가 아닌 곳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로 맞벌이 부부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지만, 보통의 일반 가정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줄 소중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혹은 주말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인포멀 과학교육 혹은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학교가 아닌 대학과 연구소, 지역의 과학관이나 과학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과학기술과 연관된 내용들이다. 미 항공우주국의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유럽입자가속기연구소(CERN)의 홍보전시관, 런던 과학박물관의 순회 전시회 및 일본 슈퍼 가미오간테의 대중화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들로 과학과 청소년을 연결시키고, 과학연구에



글\_ 조숙경  
한국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skcho@ksf.or.kr




연합포토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이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대중적 이해(PUR: 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 혹은 ‘대중의 과학기술성과확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하면서 최첨단 과학연구 현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학기술적 지식생산 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나란히 유럽연합에서도 향후 전개 될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에서 혁신을 위한 토대이자 창조성을 배양하는 근간으로 과학과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잠재된 창조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대중적 이해는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접점인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에게도 여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들에게도 사회가 합의한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진정한 여가를 위해 확보된 물리적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과학기술인들이 도전할 새로운 기회가 있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 R&D 사업 중 인건비의 5%를 과학문화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설된 5%의 예산은 기관이나 기관장을 위한 홍보예산이 아니다. 5%는 미래를 좌우할 우리 사회의 창조성을 키워낼 수 있는 이른바 시드머니(seed money)이다.

근래 들어 강조되는 과학기술의 성과확산은 생산된 과학기술적 지식의 특허출원이나 사업화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 성과확산의 대상은 중국에는 전체 국민이어야 하고, 국민을 향한 과학기술 성과확산은 국민들에게 혁신적 마인드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산업적 가능성들을 찾아내도록 유도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내재된, 아직 표현되지 않은 과학적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연구소와 대학이 기업과 NGO가 청소년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봄소풍의 계절을 맞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소풍 온 초등학생들이 인류기원전 특별전시관에 마련된 매머드 사냥체험실에서 고무창으로 모형 매머드를 사냥하며 즐기고 있다.